

덥석 잡았다, 탈 날라

‘승자의 저주’ 막는다

대형 매물이 인수·합병(M&A) 시장에 쏟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과도한 차입으로 대어(大魚)를 삼켜 배탈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. 당시 큰 기업을 인수하면 단숨에 그룹의 외형을 확장할 수 있지만 뜻밖옵션(주식 등 자신을 되팔 수 있는 권리) 부여 등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확보하면 나중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. 금융당국이 무리한 기업 M&A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. 인수기업이 부실화하면 체권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.